

C·O·N·T·E·N·T·S



02	Preface	
04	Special Report	I. 직급별 역량향상 과정 워크숍 II. 제6회 환자안전/감염관리의 날 III. 여름철 건강관리
12	Medical Column	I. 결핵 II. 패혈증
16	Zoom In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간현장조사
18	Hot Issue	합동소방훈련
20	New News	사랑나눔 바자회
22	Focus	친절직원 아주 칭찬해
26	Department Introduction	약제과
28	D-Book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
30	DanWon News	단원뉴스
32	Thank You	
33	다문화 코디네이터 서비스	
34	요실금	
35	폐암 국가암검진 실시	
36	진료과목 안내	

직급별 역량향상 과정 워크숍



영상의학실 박영호



경영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조직내 책임과 역할 인식

직접 병원장이 되어 조직도를 만들고 병원 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원들과 의논하였습니다. 병원 경영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경영자가 되어 이익을 창출하고 직원들과 호흡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병원 경영자로서 직원과 소통하며 병원을 운영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직원의 소중함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의 직급에서 병원을 바라볼 때와 나보다 아래, 위의 직급에서 바라보는 병원은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가 있고 앞으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병원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창의력 향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고 서로 공유하면 창의력을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면 더 좋은 방향과 이색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직 구성원으로서 소통을 통해 열린 생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워크숍을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불안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교육을 듣고 참여해보니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틀에 박힌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아닌 우리가!!! 서로 협업을 통해 뭉치면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 주임님~~~계장님~~~ 파이팅!!!



6월 25일 '제6회 환자안전/감염관리의 날' 개최

전직원, 환자 및 보호자, 병원 내원객 대상



단원인과 환자가 함께하는 환자안전/감염관리를 주제로 '제6회 환자안전/감염관리의 날'을 진행하였다. 전직원, 환자 및 보호자, 병원 내원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감염관리실과 Q실에서 주관하였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병원 전체 행사여서 떨리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행사를 잘 진행해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고 준비하면서 좌충우돌,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일단 시작하니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기분이 어찌나 좋게 되면서 성취감이 들었다.

#. 환자안전/직원안전 4행시

4행시 공모전 결과

★ 최우수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노미자

환 자라고 비추는 것 없습니다
자 보세요 침상 복도에 알코올 걸러 있죠
안 전하고 인체에 무해하니 언제든지 손 소독하세요
전 화 통화 후 운동 전후 언제든지 아끼지 말고 깨끗하게 손 씻으세요

★ 우수상 - 외래주사실 이경희

환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병원!
자 신있는 진료와 친절함 설명으로 웃을 수 있는 병원!
안 전하며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는 병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함께 실천하는 안산 제일 단원병원!!

★ 우수상 - 외래 모아림

환 한 미소를 나누고 +
자 그만한 위험도 빼며 -
안 정에 안전을 더하는 +
전 직원의 사랑을 곱으로 드립니다 x

★ 장려상 - 응급실 권태희

환 자에게 설명을 잘 하는 병원,
자 신의 안전보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병원,
안 정된 환경에서 신뢰가는 직원들과 함께 일귀하는
전 세계에서 빛나는 최고의 병원, 단원병원입니다.

★ 장려상 - 재활치료실 박은석

환 영합니다
자! 이곳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단원병원입니다
안 심하시고 회복에만 신경쓰세요^^
전 직원 일동이 가족처럼 함께하겠습니다

★ 장려상 - 진단검사실 남해미

환 자들이 믿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자 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병원!
안 정하게 검사 받을 수 있는 병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병원! 그 병원이 바로 단원병원^^

★ 장려상 - 시설관리과 최병철

환 자의 안전을
자 신의 안전으로 생각하는
안 전한 단원병원
전 이곳이 자랑스러워요~^^

★ 다작상 - 외래진단간호실 최현중

환 자분- 담당간호사 최현중입니다. 낙상 가능성이 있으니 side rail 올려드릴게요.
자 자. 감감안! 실어웃! 답답해요!
안 히(아니)요, 하셔야해요, 낙상하게 되면 환자분이 크게 다칠수도 있어요.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거니 이해해주세요!
전 환자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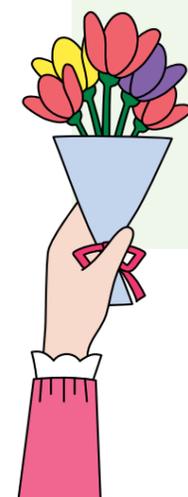
4행시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단원인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행시 공모전은 사전행사로 6월 12일부터 7일 동안 그룹웨어 설문문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였고 환자안전/직원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직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안전의식은 이번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4행시 우수작을 선정하여 게시하고 심사, 평가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4행시 게시물에 스티커 투표를 하고 공감을 표시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부듯했고 우수작들을 수상하면서 기뻐하는 직원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덩달아 보람도 느껴졌다.



최우수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노미자 / 우수상 : 주사실 이경희, 외래 모아림



#. 환자안전 라운딩



<병동>



<약제과>



<물리치료실>



<특수검진실>

오전에는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사장, 병원장, 행정처장, 간호부장 등 병원 경영진과 함께 환자안전 부서 라운딩을 진행했다. 환자접점부서 직원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안전한 병원 생활과 질 높은 의료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오후에는 감염관리실과 QI실에서 병동 라운딩을 통해 환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취지를 알리며 기침 에티켓 교육도 시행하였다.



#. 안전나무 만들기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메시지를 담은 사과시스템으로 안전나무 만들기를 진행함으로써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가 진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안전나무는 병원안전문화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작성해서 나무에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려한 안전나무가 완성 되었다.

환자와 내원객을 대상으로 정확한 환자확인과 손위생에 관련된 홍보용 부채 배부 및 마스크 착용 시범과 체험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50대의 한 보호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안전의 중요성과 손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요령을 익히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OX퀴즈



OX퀴즈는 단순하면서도 헛갈리기 쉬운 내용을 콕 집어서 알려줄 수 있을만한 문제로 준비했다. 참여하는 직원들은 틀릴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였지만 역시!! 안전의식이 투철한 단원인들은 모든 문제를 척척 풀어나갔다. 한 해 동안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 대해 애써주신 직원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품을 준비하였는데 많이 좋아해주셔서 부듯했다.

병동을 돌며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과 기침에티켓과 관련한 리플렛 및 부채를 전달하면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소통과 공감대를 확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환자안전/감염관리의 날"을 마치며...



♥ 감염관리실 전연수

하루로 짧은 일정이었지만 전직원과 환자 및 병원 내원객의 참여와 노력이 함께하여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감염관리실이 되겠습니다. 힘차게 아자아자 화이팅!!! ^^



♥ QI실 홍희숙

"제6회 환자안전/감염관리의 날"을 통해 전직원 모두 바람직한 감염관리와 환자안전문화 조성 및 재인식의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환자와 단원인이 함께 하는 환자안전/감염관리의 디딤돌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된 것 같다. QI실 직원으로서 환자안전 시스템과 문화를 전직원에게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의 중요성과 노력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다양한 방법과 고민을 통해 환자안전의 가치를 이루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해 주신 단원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

주요 증상

- 고열
- 땀
- 빠른 맥박 및 호흡
- 두통
- 오심
- 피로감
- 근육경련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사람에게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서 비교적 가벼운 열탈진까지 다양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 질환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열사병'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열탈진'
팔, 다리 등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
어지러움과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손, 발이나 발목이 붓는 '열부종'



온열질환 발생시 응급조치

의식이 없는 경우



의식이 있는 경우



- 온열질환은 증상이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상황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이송 전 환자를 신속히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수분보충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합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무더운 날 이런 경우 더 위험합니다!



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

구분	주요 특성	응급조치 방법
열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열 (40°C) 중추신경 기능장애 (의식장애/혼수상태)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의식을 잃을 수 있음 ※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사타구니)에 대어 체온을 낮춥니다. ※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열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땀을 많이 흘림 (≤40°C)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창백함, 근육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합니다.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 음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열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곳에서 휴식합니다.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 음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근육부위를 마사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열실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지러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습니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립니다. 의사소통이 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열부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습니다. -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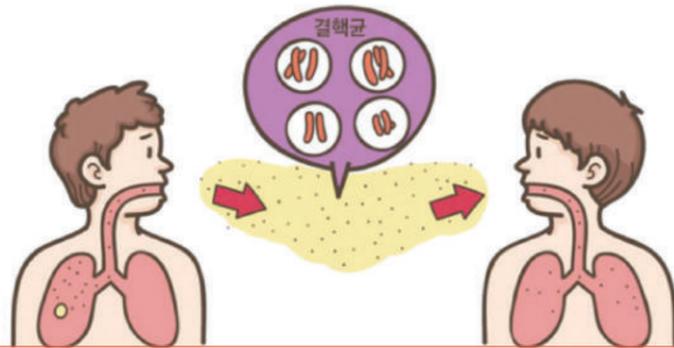


여행 전	01 여행지역별 주의해야할 감염병 확인하기! <small>* 국가별 감염병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dca.go.kr) 해외질병-국가별 질병정보 및 모바일(m.kdca.go.kr)-해외질병-국가별 질병정보)에서 확인 가능</small>	02 모기 기피 용품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및 긴바지 등) 준비하기!
	03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연기 고려하기!	04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주의사항 및 태아 건강상태 체크하기!
여행 중	01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되는 숙소 이용하기!	02 외출시 밝은색 긴팔 및 긴바지 착용하고, 숙소에서는 모기장, 모기향 등 사용하기!
	03 기피제는 허용량을 준수하여 신체 노출 부위 및 옷에 얹게 바르고, 눈, 입,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기! <small>* 기피제 사용전 동봉된 설명서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통해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small>	04 야외 활동시,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 및 산 속 등은 가급적 방문하지 않기!
여행 후	01 귀국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 알리고 진료받기!	02 해외여행 후, 헌혈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0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를 방문한 남녀는 귀국 후 6개월 동안 임신연기, 콘돔사용 또는 성관계 하지 않기! <small>* 지카바이러스는 성접촉을 통해 전파 가능</small>	04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를 방문한 임신부는 산전진찰을 통해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 모니터링 하기!

결핵 바로알기



감염관리실 류혜민



+ 결핵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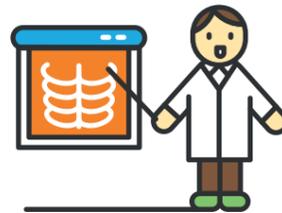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 체내로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결핵입니다.
- 활동성 결핵환자의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제3자의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면서 감염됩니다.
-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지만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결핵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균에 감염되어도 면역력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증상

- ① 기침 ② 객혈 ③ 호흡곤란 ④ 무력감, 피로감 ⑤ 미열, 오한 등 발열 ⑥ 체중감소

+ 진단

- ① 흉부 엑스선(X-ray)검사
- ② 결핵균 검사
 - 객담 도말검사
 - 객담 배양검사
- ③ TB PCR검사



+ 치료

결핵은 올바른 약복용을 통해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의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핵균은 증식이 매우 느려 일부 결핵균이 죽지 않고 다시 증식하여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염력은 언제 사라지나요?

결핵치료를 시작해 2주 정도 약을 복용하면 대개의 경우 전염력은 사라집니다.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라도 일단 화학치료를 시작하면 전염성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환자의 격리 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염성 결핵 환자가接客업이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 법적으로 일정기간 업무의 정지,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접촉자 관리

- 결핵환자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한 가족 및 동거인은 결핵 발병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검사 방법
 - ① 흉부 엑스선(X-ray)검사
 - ② 투베르쿨린검사(TST)
 - ③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 검사는 각 보건소 및 가족 접촉자 검진 참여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결핵예방 생활수칙



기침할 때 코와 입 가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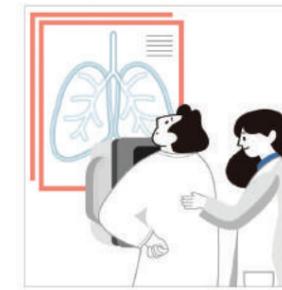
기침이 계속되면 마스크 착용하기



균형있는 영양식 섭취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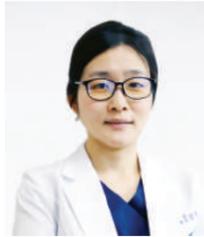
주기적으로 환기시키기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사!”

- ※ 단원병원은 결핵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 결핵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TEL. 031)8040-5824

출처 : 대한결핵협회

패혈증



내과 안점마

패혈증이란?

패혈증은 세균이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체내에 침입하여 유발되는 감염병의 일종입니다. 패혈증은 일종의 중증 감염병으로 외부 미생물에 대한 신체의 과한 염증반응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신체 내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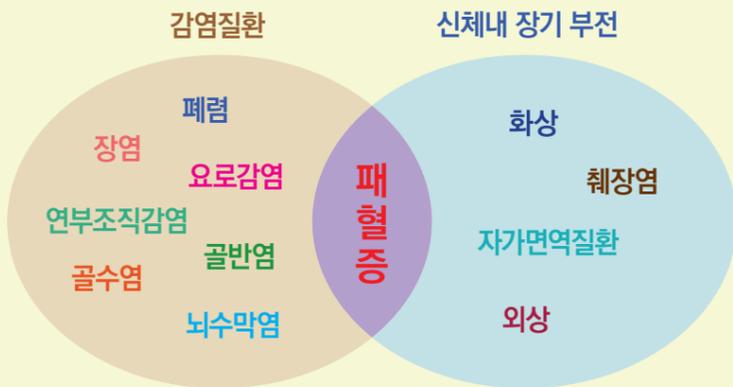
신체 내 장기 손상은 호흡부전(폐기능), 혈압저하(심장기능), 소변량 감소(신장기능), 황달 여부(간기능), 출혈 소인(조혈계 기능) 정도를 각각 0~4점으로 점수화하여 이들의 총합으로 평가하며 총점 2점 이상이 될 때 장기부전이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장기부전은 외상이나 자가 면역 질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혈증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부전이 존재하되 그 유발요인이 반드시 감염증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감염증이라도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패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나요?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이면 모두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균주로는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진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폐, 신장/요로, 장, 담낭/담도, 연부조직, 골수, 자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패혈증은 특히 신생아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알코올 중독, 영양실조, 만성 간질환)들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패혈증 정의

(SOFA score > 2점)



패혈증 증상

초기

전신 염증성 반응 징후

체온↑/↓, 오한, 호흡↑, 두통, 근육통, 관절통, 맥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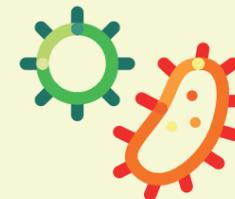
국소 감염 징후

기침, 가래 - 폐렴
 배뇨장애 - 요로감염
 설사, 구토 - 장염
 피부종창/압통 - 봉와직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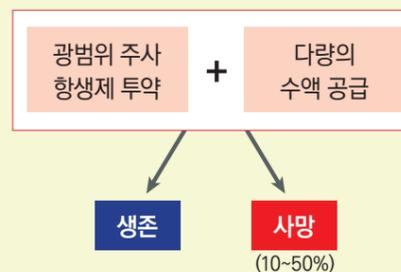
후기

전신 관류 저하

혈압저하 / 의식저하
 청색증 / 장마비 / 소변감소



패혈증 치료



패혈증 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초기에는 주로 전신 염증반응으로 오한과 함께 고열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체온이 낮아지면서 두통, 전신 근육통/관절통이 동반되며, 호흡 및 맥박이 빨라집니다. 이후 질환이 악화되면 혈압 저하 및 말초 장기 내 공급되는 혈류량 감소로 인하여 피부가 파랗게 변하기도 하고 의식저하 및 정신착란, 장음 소실/장마비/구역/구토 및 소변량 감소가 발생하면서 결국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외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배뇨장애, 압통, 종창, 복통, 혹은 설사 등 기저 감염증과 관련한 증상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패혈증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진단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임상증후, 혈액/소변 검사, 배양검사, 영상검사 결과를 총 종합하여 패혈증의 정의에 합당한지 판단 후 진단하게 됩니다. 먼저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증이 있는지 확인이 중요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배양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나 배양검사 결과 확인까지 5-7일의 시간이 필요하며 대략 반수의 환자에서 배양 음성결과를 보이기에 감염증을 시사하는 임상조건 및 검사결과가 관찰되면 감염증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기능 장애를 SOFA 점수(호흡기계/신경계/순환계/간/응고/신장)로 평가하여야 하겠고 총점 2점 이상의 장기부전을 보이면서 그 원인이 감염증인 경우 최종적으로 패혈증이라 진단 할 수 있습니다.

패혈증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의료기술 및 의학 발전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사망률은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패혈증의 정도에 따라 사망률은 10~52%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혈구가 감소하는 경우,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 에이즈나 간경화 같은 기저 면역저하자, 요로감염 외의 타감염질환으로 발생한 경우, 병원내 감염, 항생제 투약이 늦은 경우 특히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혈증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장기의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양검사 시행 및 영상 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의 감염 부위를 찾음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 광범위 주사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합니다. 의심되는 균주에 모두 효과적이면서 감염된 조직에 적절한 투과성을 가지는 항생제로 선택해야 하며, 추후 배양검사 결과를 토대로 균주에 맞게 변경해야 하겠으며 보통 1~3주간 투약이 필요합니다. 항생제 투약과 함께 중요한 초기 패혈증 치료법은 다량의 수액 공급입니다. 첫 1시간 내 1~3L의 다량의 수액 공급이 권고되며 이후 환자의 혈액학적 소견에 따라 수액 공급량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패혈증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환자의 혈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신체의 각 조직에 혈액 및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평균혈압, 소변량, 중심정맥압, 중심정맥산소포화도, 젯산수치 측정) 해야 하며 때에 따라 집중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간현장조사 100% “충족”

2019년 4월 17일 중간현장조사 일정 통보
2019년 4월 24일 중간현장조사 실시
2019년 6월 05일 중간현장조사 결과 통보



중간현장조사란?

인증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 기간 중 의료기관 현장에서 시행하는 정규조사로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인증원에서 조사팀을 구성하여 시행한다.

의료기관 필수기준으로 정확한 환자확인,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수술/시술의 정확한 수행, 낙상 예방활동, 손위생 수행, 직원 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질 향상 운영체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을 조사했다. 또한 최우선 관리기준으로 의약품 보관, 처방 및 조제, 감염관리체계, 감염발생감시 프로그램, 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수술장 감염관리를 조사했다.

의무기록 완결도 기준으로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를 조사했다.

구분	조사기준		조사결과
필수 기준	1.1.1	정확한 환자확인	충족
	1.1.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충족
	1.1.3	수술/시술의 정확한 수행	충족
	1.1.4	낙상 예방활동	충족
	1.1.5	손위생 수행	충족
	1.2	직원안전 관리활동	충족
	1.3	화재안전 관리활동	충족
	2.1	질 향상 운영체계	충족
	2.3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충족
	최우선 관리 기준	6.2.2	의약품 보관
6.3		처방 및 조제	충족
10.1.1		감염관리체계	충족
10.1.2		감염발생감시 프로그램	충족
10.1.4		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충족
10.2.2		수술장 감염관리	충족
의무기록 완결도 기준	12.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충족

조사위원들은 “규정과 지침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안전보장활동, 지속적 질 향상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문화 정착과 질 향상을 위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한한 기관”이라 평가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이 적정함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시 119 안전센터와 함께하는 합동소방훈련

- ▶ 훈련일시 : 2019년 5월 16일(목)
- ▶ 훈련장소 : 단원병원 본관1층 응급실
- ▶ 훈련참가 : 단원병원 자위소방대, 응급실, 안산소방서 원시 119안전센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및 대형병원의 화재에서 병원의 초기대응에 따라 귀중한 생명의 생사가 갈리는 것을 보면서 평소 소방훈련의 중요성을 크게 실감하게 됩니다.

5월16일 안산소방서(원시 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 및 초기진화, 소방서 신고 등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관할 소방서와 신속한 연계활동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소방훈련은 본관1층 응급실의 냉장고에서 불이난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발신기 작동 및 원내 화재방송 및 소방서 신고, 불이 발생한 장소의 부서원들의 초기진화, 단원병원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활동, 소방차 진입유도 후 소방서에 상황 인계의 순서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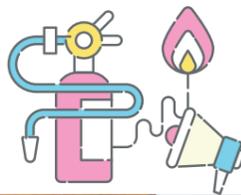
응급실에서 불이난 상황을 가정한만큼 거동이 불편한 환자역할 인원을 배치시켜 실제 상황처럼 대피유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가상 화재 훈련이 끝나고 자위소방대 및 직원들의 올바른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교육 및 실제로 사용해 보는 방사 실습 시간도 가졌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니깐요!!

단원병원에서는 자위소방대 및 전부서의 정기적인 소방교육을 통하여 소방서 화재신고, 환자대피, 초기진화 등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숙지하고,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하여 실전 능력을 향상시켜 단원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 및 방문객들을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병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훈련의 도움을 주신 안산소방서 원시 119안전센터 소방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과 최병철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 초기진화 훈련〉



〈자위소방대 출동 소화전 방수 훈련〉



〈소화전 사용법 훈련〉



〈대피유도 훈련〉



〈대피유도 훈련〉



〈소화전 사용법 교육〉



〈소화전 사용법 교육〉



〈소화기 사용법 교육〉



〈소화기 사용법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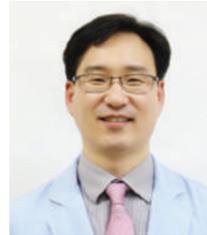


〈소화전 사용법 실습〉



〈합동소방훈련 강평〉

사랑나눔 바자회



원목실 이경래

5월 20일 제3회 단원병원 사랑나눔 바자회가 행복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준비 하면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힘껏 협력해주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자회 때마다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광림교회와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준비해야 한다며 손수 시골 까지 내려가서 좋은 재료를 골라 정성껏 밥을 준비한 빛나교회팀, 함께하고 싶었지만 잡혀있는 교육일정 때문에 봉사할 수 없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정성껏 커피와 주스 그리고 약속하지 않은 컵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신 라온동행교회, 그리고 더 풍성한 바자회가 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었던 자원봉사자들, 바자회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진행을 도와주신 단원병원 대외협력실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껏 협력하면서 행복했던 우리 모두의 사랑나눔 때문에 더욱 풍성한 바자회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10~30만원 정도를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지급했던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30만원을 손에 받아든 어르신은 기도가 마치자 이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원망의 한숨도, 갑갑한 현실의 절망도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자신들의 힘듦을 알아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구나 봅니다.

기억에 남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분이신데, 한국에 들어온 지 겨우 한 달, 제도적으로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데려온 작은 교회 관계자는 갑자기 큰 돈을 지출해야 할 상황에 적잖게 힘들어했습니다. 다행히 급한 치료는 잘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하기로 하면서 병원비 부담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내내 '좀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안타까움에 힘들었던 경우였습니다.

환자들 저마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절박한 이들도 많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속삭이듯 겨우겨우 속내를 털어놓던 한 환자분을 원목실로 모셔 와서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야 병원비를 지원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막막한 사정을 털어놓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전체 병원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지원비 봉투를 받아두고 연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던 어르신에게 작지만 큰 위로가 되었음에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와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치러진 사랑나눔 바자회를 통해 모여진 후원금은 절박한 그 누군가에게는 동화 속 이야기에서 나오는 위기의 오누이에게 내려온 동아줄처럼 한 줄기 희망의 생명줄로 여겨지나 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사랑의 나눔이 큰 울림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바자회를 위해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사랑나눔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제과 변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된 약품만 사용!!!
환자 중심의 약물 정책을 우선시하는 약제과를 소개합니다.

조제 및 투약

환자의 약물치료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 감사를 통한 조제, 투약 및 복약상담, 약물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와 의약분업 예외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투약 업무와 함께 복약 상담을 수행하며 약물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조제한 물품 정보(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 정보), 환자 정보(환자명, 주민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 정보(처방전 발급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처방전 교부번호, 의사명, 면허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조제보고를 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환자에게 약물 투여 시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간호사/의사가 ADR(Adverse Drug Reaction, 약물유해반응) 보고서를 작성하면 약제과에서는 환자의 EMR을 토대로 약물과 이상반응간 인과관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상반응이 약물에 의한 것인지, 질병의 진행·악화로 발생한 것인지, 혹은 병용약물이나 기저상태에 의한 영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평가 기준 : WHO-UMC)

평가를 마친 ADR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이상 사례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된 ADR은 안전성 정보 생산, 제품 업무에 활용되며 전반적인 의약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로 쓰이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병원에서 보고된 ADR은 약사위원회를 통해서도 분기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약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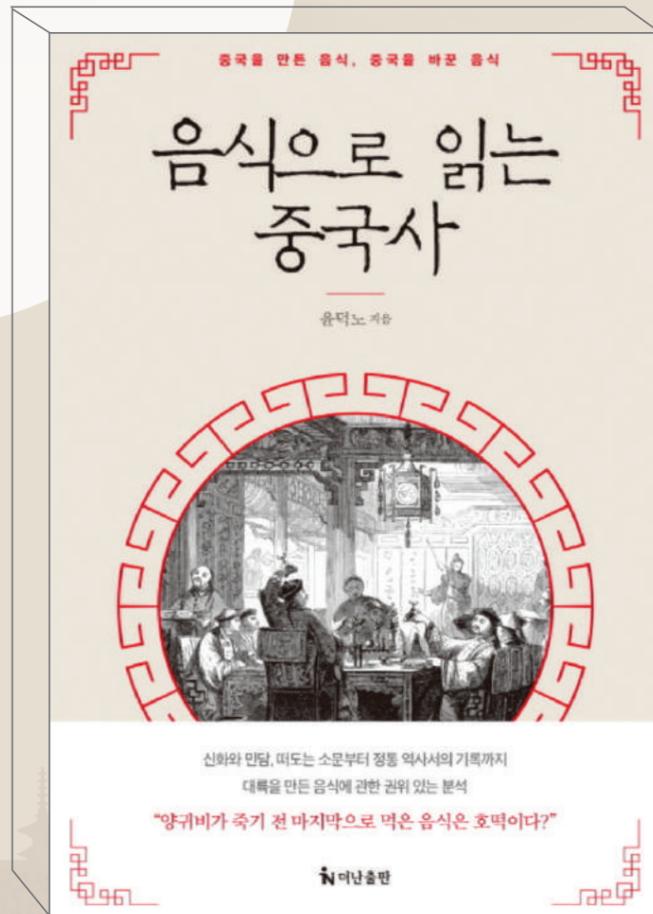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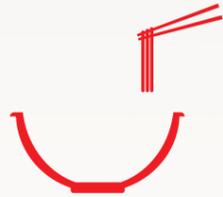
1년에 4번(분기마다) 약사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매 분기 첫 달에 접수 받은 신약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며 약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결된 약제에 대해서는 입고 후 코딩 작업을 진행하며 더불어 신약에 대한 정보를 실은 의약품지도도 함께 제작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심사할 때는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원내 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1품목, 원외로는 오리지널 1품목 & 제네릭 1품목으로 기준을 두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66
병원의 발전과 더불어
약제과도 함께
발전해나가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



마취통증의학과 김옥곤

최근 미디어의 최애(最愛) 토픽은 무엇보다도 요리(料理, cook)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떡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리법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나 평론가 등이 인기인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음식점 소개에 한창입니다.

음식을 놓고 먹는 식탁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조리할 수 있다는 중국요리와 역사를 조합시킨 저서를 소개합니다.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 더난출판에서 펴내고 윤덕노라는 분의 저서입니다. 2019년 05월 07일 출간되었으니 제법 따끈한 책입니다.

잠깐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귀에 익숙한 호떡이나 휘귀는 물론 만두, 양고기, 돼지고기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굴, 후추, 고구마 등을 내세워 중국이라는 방대한 나라의 역사를 물 흐르듯 잘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夏,殷,周, 春秋戰國, 漢, 魏, 晉, 南北朝, 隨, 唐, 宋, 元, 清 등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역사 속에서 그들만이 가진 방대한 파노라마를 음식에서 향내 맡을 수 있습니다.



제47회 보건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상



5월 1일(수)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47회 보건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상식에 참석했다. 단원병원 문용식 의료원장과 성기령 간호사는 경기도민 보건향상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지역 내 홍역 예방에 앞장서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우수한 노력을 보였기에 기관·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단원병원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더욱 더 힘쓸 것이며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린이날 행사



5월 3일(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1층 로비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주고, 페이스페인팅으로 여러 캐릭터를 아이들 손등에 그려주며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였다. 또한, 깜짝 준비한 인형탈을 쓰고 소아 병동을 방문해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원내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다. 각 병동을 비롯한 외래로 오신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신규 간호사들과 병원 실습생 학생들도 수줍은 미소와 함께 직접 일일이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며 건강을 기원하는 말을 전달했다. 어르신들도 병원에서 이렇게 꽃을 받을 줄 몰랐다고 기쁜 마음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여 더욱 따뜻하고 뜻 깊은 행사였다.

사랑나눔 바자회



5월 21일(월) 제3회 사랑나눔 바자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병원 후문에서 진행하였다. 사랑나눔 바자회는 매년 50여명의 봉사자들이 준비하고 환우들과 직원들의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바자회에서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떡볶이, 순대, 김밥, 커피 등 누구나 와서 맘껏 즐길 수 있는 자리였으며, 환우들은 물론 내원객들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름답고 값진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거둔 귀한 기부금은 환우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단원병원은 앞으로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한양대학교 ERICA 업무협약(MOU) 체결



5월 29일(수)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본관에서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와 인재 양성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단원병원 김병열 이사장과 한양대학교 ERICA 양내원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원 등 향후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내용들을 협약했다.

한양대학교 ERICA 프로젝트 발표회



6월 13일(목) 9층 교육관에서 한양대학교 프로젝트 관리학과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다. 발표에는 프로젝트를 준비한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단원병원 멘토들이 참석하였다. 각 팀마다 주제에 맞는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원병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알 수 있었고, 방안들을 수렴해 보다 나은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단원병원은 한양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인재 양성과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개선 및 차별 금지 교육



6월 13일(목) 별관 4층 재활치료실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 금지' 교육이 있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해 진행되었다. 교육을 통해 병원에서 서비스 제공 시 어떤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단원병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모두를 배려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19 신규 간호사 돌잔치 및 프리셉터 종료식



6월 13일(목) 9층 교육관에서 '2019 신규 간호사 백일잔치 및 프리셉터 종료식'이 있었다. 이 행사에는 김병열 이사장, 이미화 간호부장 등 총 101명이 참석했다. 이미화 간호부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고, 김병열 이사장의 축사, 신규 간호사 백일잔치, 프리셉터 종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2019 신규 간호사들이 적응 기간을 잘 마치고 병원생활에 잘 적응하였음을 축하하며 신규 간호사들을 영정적으로 가르친 프리셉터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였다.

송산신도시 세영리첼 입주민 헬스케어 MOU 체결



6월 20일(수) 9층 교육관에서 송산신도시 세영리첼에듀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입주민 헬스케어서비스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입주민 건강관리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단원병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해아들어린이집 견학



6월 27일(목) 해아들어린이집에서 어린이 20여명과 인솔교사 3명이 병원 견학을 위해 단원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업과 의사와 간호사 등이 하는 일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 어린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재밌는 동영상으로 깨끗하게 손 씻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짝공과 두 손을 잡고 1층 소아과를 방문하여 키와 몸무게도 재보는 체험학습 시간을 가졌다. 단원병원은 어린이집 견학을 통해 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천할 수 있는 질병예방 방법을 알려주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Thank You

Welcome

김정수 간호간병통합병동
배영수 집중치료실
김성호 영상의학실
최유정 영양실
류지원 진료부
우민지 6병동
이현정 심혈관조영실
김순옥 영양실

차영숙 영양실
이현호 진료부
문태기 응급실
노은지 심혈관조영실
김민경 의료정보실
남혜미 진단검사실
이나연 진단검사실
정가영 수술실

한봉길 약제과
김성은 7병동
김정애 간호간병통합병동
김명희 영양실
김재홍 진료부
김량희 간호간병통합병동
김희원 영상의학실

Thank You

김소연 영양실
조민이 8병동
소윤형 영양실
윤봉미 영양실
박연수 집중치료실
김중호 진료부
임나라 응급실
조가연 응급실

이윤희 의료정보실
함성이 중앙공급실
정지애 영상의학실
조신영 간호간병통합병동
송미옥 약제과
백진영 간호간병통합병동
김승희 외래
김성호 영상의학실

신성호 진료부
문태기 응급실
장시영 진료부
박보빈 8병동
박지혜 6병동
정유연 7병동

경조사

윤도영 진료부(본인결혼)
오난영 간호간병통합병동(본인결혼)
김예지 재활치료실(출산)
문은숙 외래(출산)

이혜진 7병동(출산)
강장미 진단검사실(출산)
한설희 외래(출산)



다문화 코디네이터 서비스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통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1:1 진료상담, 안내까지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국가 :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중국



INFORMATION SERVICE

임신

출산

노화

폐경

중장년 여성 10명중 4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질환

요실금



운동이나 약물치료 등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순 있으나
손상된 방광질근육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미니슬링

약해진 요도 괄약근 밑에 테이프를 삽입,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 질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

- ✓ 최소 절개로 흉터 적음
- ✓ 간단한 국소 마취
- ✓ 10분 내외 짧은 수술 시간
- ✓ 당일 입·퇴원 가능



TOT

요도를 압박하지 않고,
중부요도에 가볍게 테이프를 걸어주는 방법

- ✓ 20분 내외 짧은 수술 시간
- ✓ 회복기간 2~3일
- ✓ 대부분 영구적 지속
- ✓ 수술 흉터, 통증 적은 편

